

# 기계의 운명 거부하는 로봇의 유랑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영화 속 로봇

이명인 | 영화평론가

영화에서 로봇은 갈수록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혹은 인간보다 더 가족적인 모습으로 비친다. 로봇은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만, 이는 인간을 더욱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사랑의 정서를 그들이 실현해내는 것이다. 이처럼 순화된 로봇은 창조주인 인간이 바라는 모습이다.

우리가 영화 속 로봇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점검해봐야 할 존재론적 질문이 있다. 지금껏 인간을 인간이게, 로봇을 로봇이게 만들어왔던 '사유'는 아직도 여전히 인간적인 행위에 머무르는가? 코기토 에르고섬,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사유에서 존재로의 이행을 뜻하는 데카르트적 명제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한가?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와 함께 그의 역사를 사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해나가는 '기억'이란 여전히 인간적인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위치에 있는가?

## 기억, 인간과 로봇의 경계

SF영화의 걸작 <블레이드 러너>부터 유래해온 인간과 사유의 문제, 인간과 기억의 문제는 점점 그 독보적 권위를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안드로이드를 인간으로부터 구별해내기 위해 특수경찰 데커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낸다. "사막을 지나가는데 자라가 누워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파티에서 굴요리 대신에 게요리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처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답을 마련할 수 없는 안드로이드는 회수, 제거의 대상이다.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꿀까>를 원작으로 한 <블레이드 러너>는 호모사피엔스적 단순논리부터 인간적인 것에 대한 규명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좀더 개선된 안드로이드인 레이첼에게는 기억마저 이식돼 있어 인간과의 차이를 좀처럼 발견해낼 수 없다.

요즘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두드러진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기억에 관한 것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없는, 조작 가능성이 있는 기억, 더 이상 인간적인 진실을 마련해줄 수 없는 기억에 관한



인간과 사유의 문제를 제기했던 SF영화의 걸작 <블레이드 러너>의 포스터.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멜로드라마에서도 기억은 중요한 단서다. <오버 더 레인보우>는 남자 주인공이 자신이 기억할 수 없는 연인을 미스터리처럼 추적해나간다. <로스트 하이웨이>나 <멀홀랜드 드라이브>처럼 데이빗 린치의 영화들을 보고 있으면, 과연 우리가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기억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그의 영화는 한마디로 기억의 퍼즐이다. 그 기억이 진실인지 조작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인간의 기억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구제할 도리 없이 만드는 <메멘토>를 보자. 레너드는 10분 이상 기억을 유지할 수 없는 단기기억상실증 환자다. 그는 종종 자신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거리를 내달리던 그가 문득 자신에게 질문한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 저 차를 쫓고 있구나. 아니, 내가 쫓기고 있구나." 그는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 온몸에 문신을 남기고 사진을 찍고 메모를 남기지만 어떤 단서도 기억에 관한 완벽한 퍼즐이 될 수 없다. 그는 늘 오인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제 인간에게 기억은 존재론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 과연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기억이 더 이상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전유물이 될 수 없고 인간의 정체성을 해명해줄 수 없을 때, 인간성은 해체되고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들이 배척해오고 타자화해온 그들에 대해, 그들을 더 이상 우리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을 때, 인간은 공포와 위협을 느낀다. 타자들의 위협, 인간성의 위협이다.

물론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영화는 흔히 비논리적으로, 과학적 상식을 거스르며 흘러가기 마련이다. 때문에 영화의 비논리

적인 장면을 두고 지적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 영화는 감성적으로 대응한다. SF영화가 보여주는 기계문명에 대한 감성적 접근은 미래문명에 대한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인간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살인병기에서 선인으로 변신하는 사이보그** 영화 속 로봇의 이미지와 운명은 영화사와 함께 변천해오며 다양한 모습을 드러냈다. <메트로폴리스>에서 마리아의 복제품으로 등장한 로봇은 자본가의 계략 아래 만들어져 노동자들을 선동한다. 창조주의 분신으로 창조주의 선악 개념을 그대로 따라하게 돼 있는 이 기계장치는 긍정적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인다. 기계장치가 진실을 가리고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지게 되면 얼마나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는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 우주 오딧세이>에 나오는 인공지능 컴퓨터 HAL9000이다.

<로보캅>의 사이보그는 살인병기, 범집행자의 역할에 충실하지만 그에게도 어김없이 혼란은 찾아온다. 인간적인 정체성으로 규정된 기억의 개입으로 그는 사이보그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된다. <터미네이터>나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인조인간들도 그들에게 부여되고 입력된 명령에만 복종한다는 의미에서 초기 로봇 캐릭터와 운명을 함께 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들이 크게 성공하고 시리즈물들이 생겨날수록 인조인간의 운명이 변화돼간다는 점이다. 전편에서 살인병기로 쓰였던 터미네이터는 속편에서는 선한 편에 서서 인간적인 모습을 공유해나간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바이센테니얼 맨>에서 앤드류는 처음 자신의 주인가족과 대면하는 자리에서 로봇의 3원칙을 요란하게 읊어댄다. "제1법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된다. 제2법칙,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단, 제1법칙을 거스를 경우는 예외다. 제3법칙,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단, 제1법칙과 제2법칙을 거스를 경우는 예외다."

그러나 이 같은 로봇의 운명을 거부하는 영화 속 로봇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인간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하고 더욱 인간적이길 원한다. 그들은 보고 들으며 자신을 재교육시키고 내면의 인간적인 잠재력을 키워나간다. 이제 가전제품으로서 로봇의 운명을 거부하고 인간들의 세계로 뛰어들어가려는 로봇의 유랑이 시작된다.

**순화된 로봇은 인간 염원의 반영** <바이센테니얼 맨>의 앤드류는 좀더 순화된 경우지만, <A.I.>의 데이빗에 서는 드디어 인간적인 욕망이 기계적인 정체성을 뛰어넘게 된다. 이 영화는 말하자면 인간이고 싶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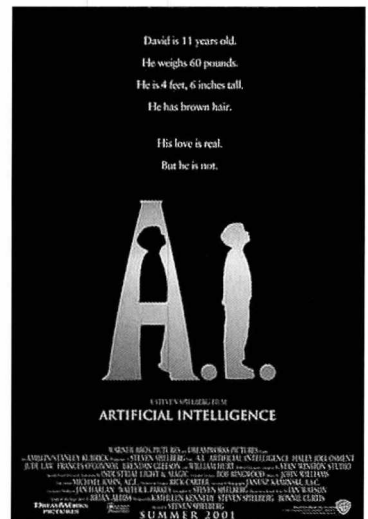
는, 진짜이고 싶어하는 로봇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로드 무비다. 미래사회의 발전된 기술문명은 인간을 대체할 대체재로서 로봇을 전문화시키고 분화시킨다.

데이빗은 자식이 없는 부부들을 위해 만들어진 지능로봇. 따라서 이 로봇이 해내는 일이란 집안 일이나 잔심부름이 아니라 오직 사랑받고 사랑하는 일 뿐이다. 모니카로부터 7개의 키워드가 입력되자 그녀를 엄마로 인식하게 되고, 마치 진짜 아들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로봇에게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입력되지 않는다. 그래서 숲 속에 버림받았을 때, '진짜가 아니어서 미안해요'라고 매달리는 데이빗의 모습은 그 어떤 로봇의 기구한 운명보다도 안타깝게 비친다. 데이빗은 모니카로부터 들은 피노키오의 동화를 진짜로 믿으며 푸른 요정을 찾아 나선다.

그와 동반하게 된 지골로 존은 남창이다. 인간의 대체재로 등장한 이 로봇의 운명도 쫓기는 신세다. 데이빗과 함께 인간적인 것을 찾아 길을 떠나지만 이들이 길의 끝에서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의 본색,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짜'가 아니라 여러 가짜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데이빗은 자신의 기억만은 보존하고 싶어한다. 그에게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적 의미일 수 있는 영겁과 영원은 의미가 없다. 그는 모니카와 보내는 단 하루에 모든 것을 건다. 이 작위적인 해피엔딩은 그러나 이제껏 로봇과 인간을 구분시켜온 기억의 문제를 새삼 들추게 만든다. 이제 로봇에게도 기억은 의미 있는 존재론으로 작동된다.

이처럼 영화에서 로봇의 모습은 갈수록 부정적인 문제의식보다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혹은 인간보다 더 가족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려 한다. 로봇으로서 자신의 운명을 거부하지만, 이는 인간을 더욱 이롭게 하기 위해서다. 인간의 사랑을, 말하자면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사랑의 정서를 그들이 실현해내는 것이다. 이처럼 순화된 로봇은 창조주인 인간이 바라는 대로의 모습이다. 이들은 이제 인간세계를 크게 거스를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로봇의 이상형이란, <A.I.>의 테디처럼 큰 말썽 부리지 않으면서 충고나 조언 정도를 해주는 심심풀이 조언의 캐릭터 같은 존재다. <스타워즈>의 R2D2나 3PO처럼 인간을 거스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는 로봇들 말이다. ■



인간적인 욕망이 기계적인 정체성을 뛰어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 <A.I.>의 포스터.

이명인씨는 전남대 독문과 졸업했다. <씨네21> 제1회 영화평론가상을 수상했고 현재 <씨네버스> <프리미어> <디지털 타임즈> 등에 기고하고 있다.